

상상력을 깨워주는 작은 섬, 케냐리부

채지형 / 여행작가 www.traveldesigner.co.kr

다우를 움직이는 것은 바람. 뱃사람은 언제나
바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나무에 문양을 새기고 있는 목수. 며칠후만 되면 평범한 나무가 멋진 목공예품으로 변신한다.

케냐 오른쪽에 자리한 작은 섬 라무는 아프리카와 이슬람, 아시아의 문화가 복합적으로 녹아있는 독특한 섬이다. 길이 15km, 너비 5km 밖에 되지 않는 아담한 섬이지만,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할 정도로 문화적인 가치가 높다.

라무는 여러 문화가 조화를 이룬 건축물과 도시 구조가 잘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14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금과 향료, 노예들을 실어 나르는 중계항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라무는 스와힐리인들의 가장 오래된 정착지로 추정되는 곳이기도 하다.

15세기 아랍인들에 의해 섬이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 16세기에는 포르투갈의 침입을 받았으며, 19세기 초반에는 아랍국가인 오만의 지배하에 놓이기도 했다. 17세기에는 아프리카 동부 연안의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로 전성기를 누렸다. 지금도 옛날 아랍 상인들이 무역에 이용했던 돛단배 '다우(dhow)'가 해안에 빼곡히 자리하고 있어, 인도양 무역으로 번성했던 당시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든다.

이슬람과 아프리카 문화를 함께 볼 수 있는 올드타운

라무 섬 중심에는 자그마한 올드타운이 있다. 산호석으로 만들어진 오래된 건물과 해변에서 자라는 맹그로브 나무들이 라무에 서만 볼 수 있는 멋진 풍광을 만들어낸다. 건물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슬람과 아프리카의 문화가 섞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올드타운의 좁은 골목길이나 독특한 안뜰과 베란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나무 대문들은 이슬람 문화를 보여주는 부분들이다.

막혀 있을 것 같은 길 끝에서 갑자기 등장



배를 타고 바다에 낙 바라본 라무섬 풍경. 이슬람 건축양식과 아프리카 양식이 조화롭게 섞여 있다.

라무 섬은 다양한 목공예가 발달해 화려하게 조각된 목공예품이 많다.

라무의 특징중 하나는 문에 있다. 문은 신분과 재산의 정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라무에서의 삶은 천천히 흐른다. 한가롭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라무 주민들.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중 하나인 카리부. 카리부(환영)라고 쓰여진 목공예품.



하는 까만 색 전통의상 부이부이 차림의 이슬람 여인들, 이슬람 모자인 코피아를 쓰고 파스텔톤의 키코이를 치마처럼 두른 이슬람 남자들을 보는 것은 라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맛이다. 골목을 따라 굽이굽이 돌아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라무 섬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당나귀다. 동남아시아 시골에서는 부지런한 닭 울음소리에 눈을 뜨게 되는데, 라무에서는 당나귀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게 된다. 라무는 '동키의 섬'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나귀가 많다. 큰 얼굴에 짧은 다리를 한 당나귀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라무에는 차가 없다. 대신 당나귀가 차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물론 라무에서도 당나귀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시내라고 해봤자 30분이면 충분히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작아, 별다른 교통수단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아다니기 위해서 별다른 지도도 필요하지 않다. 당나귀는 교통수단보다는 물건을 운반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아이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친구역할을 하기도 한다.

시원한 인도양에 몸을 싣고 두둥실

라무에서 꼭 해봐야할 것은 돛단배인 다우(dhow) 타보기다. 다우는 무동력선으로 바람에만 의지해서 움직이는 배. 그래서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바람의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다 위를 중횡무진 누볐을 이들의 전성기를 상상하며 다우를 타러 갔다. 투명한 햇살 아래 바람 냄새를 고이 간직하고 있는 다우는 그

라무는 이슬람과 아프리카 문화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섬이다.



라무의 아이들은 천진난만하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귀여운 아이들.

자체로 매혹적이었다. 다우들은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 다우들을 살펴보다 최종 선택한 다우의 이름은 '아살리(ASALI)'였다.스와힐리어로 '꿀'라는 뜻. 다우의 내부는 망그루브, 밖은 마호가니로 만들어져 튼튼했다.

바다 위로 출정을 하자마자 아살리의 선장인 알리와 3명의 크루들은 바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람쥐처럼 좁은 배 안을 부지런히 움직였다.

"바람의 소리를 봐야지. 줄을 이리 넘겨. 그래, 이쪽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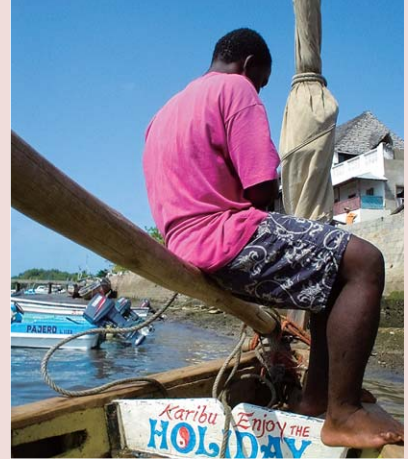
바람의 크기가 거세지자 알리의 목소리가 커지며 다우가 휘청거렸다. 함께 배를 탔던 이탈리아 아가씨인 키아라가 잔뜩 겁을 먹었다. 노련한 눈매의 선장 알리는 걱정 말라며, 올해가 다우를 만지기 시작한 지 15년째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우 속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바람의 균형을 보던 크루 중 한 명은 열심히 다우 속의 물을 바다로 퍼냈다.

잠시 후 인도양의 물결은 다우의 탄탄한 몸체를 살며시 때리고, 튼튼해 보이던 돛을 향해 돌진하던 바람도 서서히 잦아들면서 바다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우리 일행은 다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일상에 돌아온 후에도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다우를 타고 흔들거리던 라무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린다. 새파란 인도양 바다를 흔들거리던 다우와 사람들, 당나귀들과 함께 걷던 골목길, 올드타운의 화려한 문, 친절한 섬 사람들이 차례로 생각나면서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



라무의 매력중 하나는 좁은 골목에 있다. 당나귀를 데리고 골목길을 걷고 있는 라무 주민.



라무에서는 '다우'라고 불리는 배를 쉽게 볼 수 있다. 라무의 한 주민이 바다에 나가기에 앞서 배를 점검하고 있다.



라무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배 '다우'. 다우는 바람에 의해 움직인다.